

한국어 부사어의 분류와 분포 제약

채희락

한국외국어대학교

hrchae@maincc.hufs.ac.kr

요약

문장에서 술어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부사어이다.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문장 구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는 첨가어(adjuncts)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보충어(complements)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진 분야이다. 그렇지만 부사어는 피수식어의 의미를 구체화/한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어순, 호응(concord) 등의 통사적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.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이러한 부사어를 통사적, 의미적 기준에 의해 정확하게 분류하고 그들의 분포제약을 밝히는 것이다. 그 다음으로, 부사어와 관련된 통사 현상으로, 부사어와 피수식어의 공기(co-occurrence) 관계 및 부사어와 술어 어미의 호응 관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려고 한다.

부사어는 통사적인 기준과 의미적인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(손남익 1995, 김경훈 1996, 임유중 1998). 통사적 기준으로는 단어나 구를 수식하는 성분부사와 문장을 수식하는 문장부사로 나누는 방법과 위치에 대한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제약부사와 자유부사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. 이 두 통사론적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부사들은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. 일반적으로 문장부사는 문두에 놓여야 한다는 위치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약부사로 분류된다. 의미적 기준으로 부사어를 분류할 수도 있는데, 시간/공간 부사어, 양태/정도 부사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. 의미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 부사어는 통사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 것들과는 어떤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. 일반적으로 시간부사와 장소부사는 자유부사에 속하며 양태부사와 정도부사는 제약부사에 속한다.

부사어와 피수식 요소와의 통사적 공기 관계 및 의미적 관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법 현상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. 예를 들어,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부사들이지만 "*순이는 빨리 과연 달린다"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분포적 특성을 알아 볼 것이다 (심재기 1982, 송철의 1989). 또한 "길이/*길게 빛나다"와 "*길이/길게 드리워졌다"와 같은 대조에서 나타나는 통사, 의미적 기능의 상관 관계 및 제약들의 상호 작용도 살펴 볼 것이다.

부사어와 술어 어미의 호응 관계를 살펴 보면,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부사어는 특정한 종류의 어미를 가진 술어와 함께 나타난다 (김경훈 1996, 임유중 1998): 1) 나는 요즘 [아무리 조금 자아도] 피곤하지가 않다, 2) [만일 그냥 떠나-ㄴ다면] 후회할 것이다. 문장 내에서 밑줄 친 두 부분은 자매 관계에 있지 않지만 특별한 공기 관계를 이루고 있다. 우선 서로 공기 관계를 이루며 호응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 볼 것이며 해당 두 요소의 관계에 대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 볼 것이다. 호응 관계에 대한 문법적 현상은 자질(features)을 활용하며 자질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 PSG의 틀 내에서 설명하려고 한다.

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어 부사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들의 분포 제약을 살펴 봄으로써 부사어와 관련된 기본적인 통사-의미 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. 이 연구는 또한 부사어 관련 제반 현상을 폭 넓게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므로 한국어 문법 및 보편 문법의 확립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.